

세월호 참사 10여년... '선체' 고하도 매립지에 영구 보존

해수부 '처리계획이행사업 설명회'

2028년 이동... '하우징' 방식 예정
지역 체험관 등 조성... 2030년 목표
접근성 개선 체류 공간 필요성 제기
해수부 "2단계 사업 연계 통해 보완"



해양수산부 주최로 31일 오후 2시 목포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세월호 선체 처리계획 이행사업 지역 주민·가족단체 설명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서형우기자

2014년 4월16일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여객선이 침몰해 299명이 죽고 5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 10여년 만에 선체를 활용한 추모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희생자 유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은 계획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진 않았으나 접근성 개선과 체류 공간 조성 등 보완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오후 2시 목포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세월호 선체 처리계획 이행사업 지역 주민·가족단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4·16 재단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기초자료조사를 진행한 용역사에선 우선 이행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의 골자는 현재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 약 24km 떨어진 '고하도 매립지'로 선체를 옮기고, 총부지 3만7천105㎡에 생명지역관·안전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전 부지는 현재 해상을 매립해서 확보한다. 이후 선체 이동이 이뤄지며 매립지에서 영구 보존된다.

보존은 선체를 대형 건축물로 덮는 하우징 방식을

으로 이뤄지며 내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금속 부식과 구조물 변형 등을 최소화한다.

관람으로 인한 훼손도 최대한 줄이고자 교량 위에서 볼 수 있도록 동선이 짜여질 예정이다.

수년간 야외에 놓이면서 부식 등 손상을 복원하는 작업도 전개된다. 주로 이뤄질 보강은 선체 내부와 하부, 내진 등이며, 이동 전·후로 보존을 위한 세척 도색 작업도 병행된다.

선체 인근에 위치할 생명지역관에선 세월호 참사 이후 과정을 기록 전시하며 옥상에는 추모 공간이 조성된다. 안전체험관은 해상에서 재난 상황을 마주할 때 행동 요령을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방문객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위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며 오는 2028년 완성을 목표로 한다. 세월호 선체는 고하도 앞바다 매립을 거친 후 2028년 중이나 이동할 예정이다. 다만, 설명회에서 세월호 선체나 지역 체험관을 언제부터 관람할 수 있을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설명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유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이 같은 계획에 반대한다는 등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진 않았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한 목포 시민은 "기억관 내 희생자 추모 공간이 옥상에 조성된다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또 관광 수준으로 잠시 들렀다 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체류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조승우 세월호 추속대책추진단장은 "오늘 소개한 내용은 1단계 사업"이라며 "2단계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인데, 남은 매립지에 문화공연장이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계획은 완성형이 아닌 만큼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계속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장동원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총괄팀장은 "공개된 대로 추모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아직 끝나지 않은 진상 규명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형우기자

대포차 몰던 유학생 접촉사고에 '덜미'

합의 약속 후 잠적... 피해 신고로 수사
폐기 변호판 부차·무면허 운전 등 적발

폐기 처리된 변호판이 붙은 대포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외국인 유학생이 접촉 사고에 덜미가 잡혔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절도와 공기호부정사용,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께 북구 동운고가 일대에서 대포차를 몰다 B(60대)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합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후 자리를 이탈했다.

그러나 A씨가 연락을 하지 않자 B씨는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6시35분께 북구 신안동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의 번호판이 지난달 3일 충북 음성에서 폐차된 차량의 것임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차량이 등록되지 않은 대포차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검거 당시 이를 압수 조치했다.

또 A씨가 면허도 없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지역 대학에서 유학 중인 A씨는 사고 후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소재 불명 신고도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변호판과 차량 입수 경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윤찬웅기자

"돈 안 빌려줘?" 지인 차에 볼 50대 자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차에 볼을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3분께 광산구 송정동 한 주택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 볼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볼은 소방 당국에 의해 오전 2시33분께 완진됐다.

범행후 A씨는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피해 차량은 A씨와 지인 관계인 B씨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볼을 질렀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육근기자



중동발 위기 극복 캠페인 중동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집중 캠페인이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삼거리에서 열려 북구 관내 기관·단체와 공직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조영권기자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일당 재판대에

콜센터·비인가 판매 등 1억원대 피해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위해 콜센터를 꾸리거나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주식을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 등 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등 3명은 콜센터를 운영하며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억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3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며 3천4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실제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 3명은 A씨 등과 마찬가지로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벌여왔으나,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 등 3명이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면서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선 오는 6월9일 재판을 이어나기로 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1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 후 별도 기일을 잡아 선고할 계획이다. /안재영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